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파월 의장, 연준에 계속 남기로 결정한 이유?

[미국 금융]
- YahooFinance: 비트코인, 8만 불 일시 돌파…1월 이후 최고치
- CNBC: 오일가의 인플레 우려에 국채 금리 상승

[이란 전쟁]
- Bloomberg: 미 재무장관, “중국과 동맹국, 호르무즈 개방 미 노력에 동참해야”
- Bloomberg: 미국, “미군함, 이란 미사일에 피격” 이란 보도 부인
- Bloomberg: 미 이란 위험 고조에 호르무즈 통행 계속 중단 상태

[오일
- Bloomberg: 호르무즈 혼란속에 미국이 마지막 오일 공급처
- WSJ: 오일 상승세… 투자자들, 미국의 호르무즈 개입에 따른 미 이란간 리스크로

[글로벌 경제]
- WSJ: 에너지 쇼크에도 불구, 글로벌 경제 회복력 보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 외부로 확대한다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Why Jerome Powell Decided to Stay at the Fed
파월 의장, 연준에 계속 남기로 결정한 이유?

-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5월 15일 의장직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자신에 대한 법적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이번 파월의 결정은 연준 빌딩 개보수 공사 감독 과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파월을 상대로 형사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내려졌다.
- 트럼프 측근들은 파월의 잔류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파월은 후임자의 판단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파월은 당초에 연준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Bitcoin briefly tops $80,000, the highest level since January
비트코인, 8만 불 일시 돌파…1월 이후 최고치

- 비트코인이 밤사이 2% 급등하며 1월 말 이후 최고치인 8만 달러를 일시 돌파했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주식 시장의 혼조세와 중동 전쟁의 새로운 전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트럼프가 발표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는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중립국 국제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은 일요일 밤늦게 1월 최고점까지 치솟았다.



기사

CNBC: Bond yields push higher as oil prices threaten to drive up inflation and traders await Friday jobs report
오일가의 인플레 우려에 국채 금리 상승

-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미국 고용 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 국채 시장에서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3.933%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4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418%를 나타냈다.
-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p를 의미하며, 국채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4.434%	+0.056
US1M	U.S. 1 Month Treasury	3.665%	UNCH
US1Y	U.S. 1 Year Treasury	3.763%	+0.042
US2Y	U.S. 2 Year Treasury	3.948%	+0.06
US30Y	U.S. 30 Year Treasury	5.014%	+0.048
US3M	U.S. 3 Month Treasury	3.677%	+0.01
US6M	U.S. 6 Month Treasury	3.721%	+0.021

기사

[이란 전쟁]

Bloomberg: Bessent Calls on China, Allies to Join US Operation in Hormuz
미 재무장관, “중국과 동맹국은 호르무즈 개방 미 노력에 동참해야”

- 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미 동맹국들과 중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송을 위한 미국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Bessent 장관은 미국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압박했다.
- 이에 따라 미국은 유도미사일 구축함, 항공기, 드론 등을 투입해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돕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프리덤(Operation Freedom)'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기사

Bloomberg: US Denies Iran Report That Naval Ship Was Hit by Missiles
미국, “미군함, 이란 미사일에 피격” 이란 보도 부인

-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 군함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이란 매체 Axios의 보도를 부인했다.
- 이란의 또 다른 국영 통신사인Tasnim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통제 구역'을 다시 설정했으며, 이란 당국이 선박 통행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 이러한 조치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경우 공격하겠다는 이란 군부의 경고와 궤를 같이한다
- 한편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으로 명명된 통행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이란 군부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경우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

Bloomberg: Shipping Freeze Deepens in Strait of Hormuz Amid Rising Risks
미 이란 위험 고조에 호르무즈 통행 계속 중단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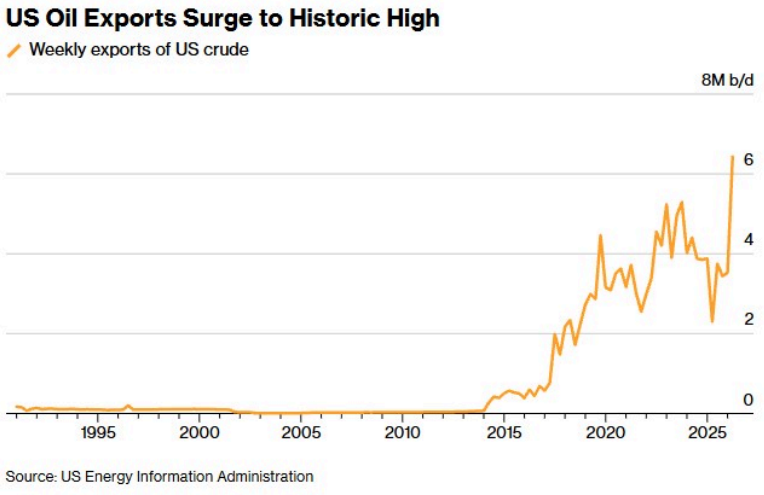
-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선박들을 공격하며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핵심 수로에 갇힌 선박들을 인도해 나오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상업적인 통행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이 호르무즈의 병목 구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면서 현재 수백만 배럴의 원유와 관련 제품들이 페르시아만 내부에 묶여 있다. 월요일 오전 현재 상업용 선박의 통행은 여전히 매우 드문 상태다.

기사

[오일]

Bloomberg: US Is Oil Supplier of Last Resort as Hormuz Disruptions Worsen
호르무즈 혼란속에 미국이 마지막 오일 공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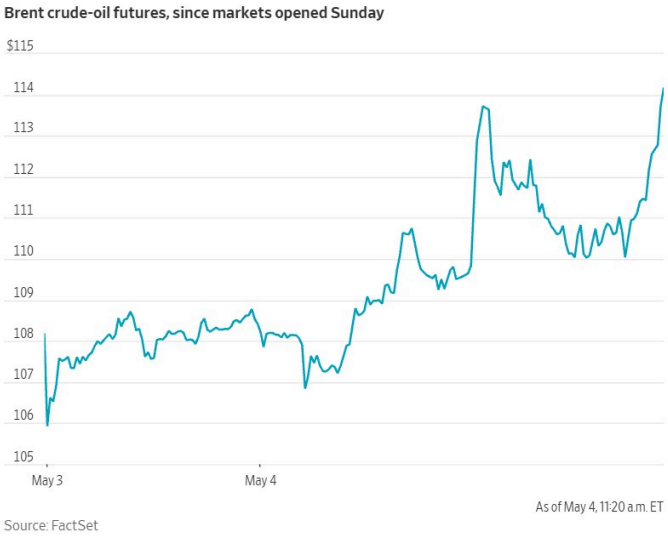
- 미국이 원유 수출 1위 국으로 올라섰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주간 해외로 수출된 원유는 2억 5,000만 배럴을 웃돈다.
- 하지만 수출 급증으로 미 국내 재고는 4주 연속 감소하며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규모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한편 재고 고갈과 연료비 상승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매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해결이라는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기사

WSJ: Oil Soars as Traders Fear U.S. Move to Unblock Hormuz Could Stoke Tensions
오일 상승세… 투자자들, 미국의 호르무즈 개입에 따른 미 이란간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가파른 널뛰기 장세를 보인다.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하루 사이 배럴당 105.55~114.30달러 사이에서 급등락했다. 특히 미 군함이 피격됐다는 이란 측 보도에 오전 한때 5% 이상 폭등했으나, 미 중부사령부가 이를 부인하며 혼조세가 이어졌다.
이러한 변동성은 상선 통행을 직접 인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유가는 전날 발표 직후 2% 하락했다가 이란의 공격 주장 이후 다시 치솟는 등 요동쳤다.
트럼프의 구상은 국가 간 협력과 보험사 등을 동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는데 현재 미 해군의 직접 호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작전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기사

[글로벌 경제]

WSJ: Here's What's Shoring Up the Global Economy During the Energy Shock
에너지 쇼크에도 불구, 글로벌 경제 회복력 보여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일일 1천3백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회복력은 충분한 에너지 비축량, 소비자 지원 정책, 그리고 인공지능 붐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성장률 둔화 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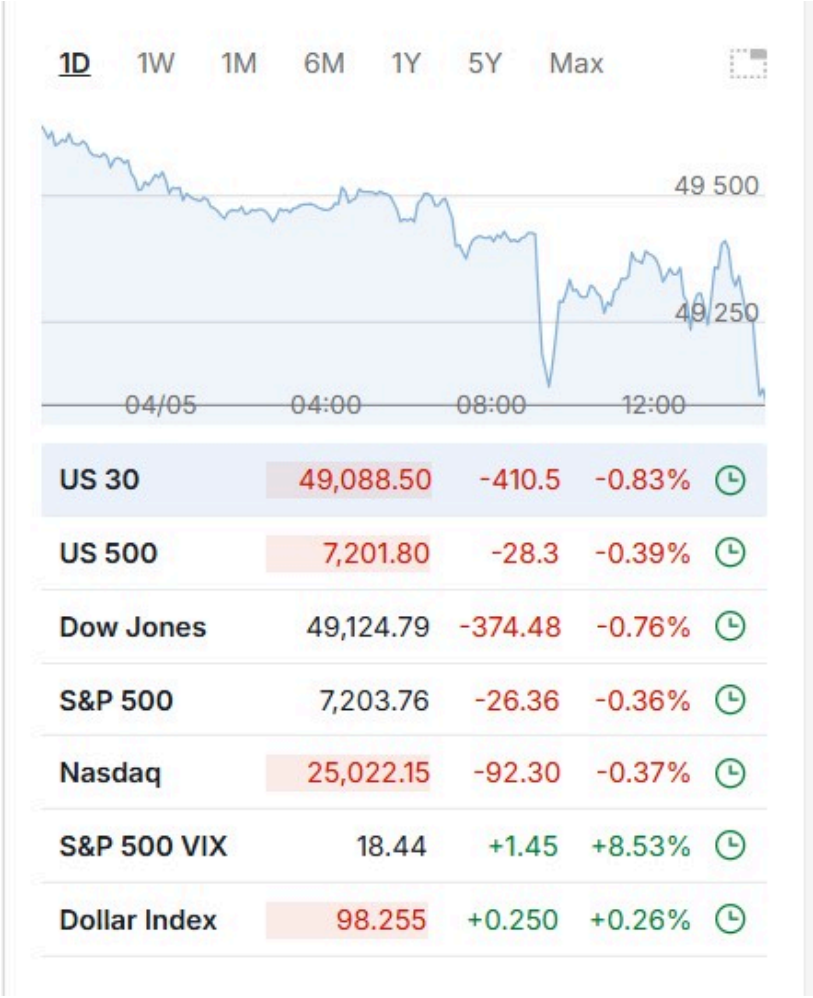
WSJ: Amazon Built a Massive Supply Chain for Itself. Now It's for Hire.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 외부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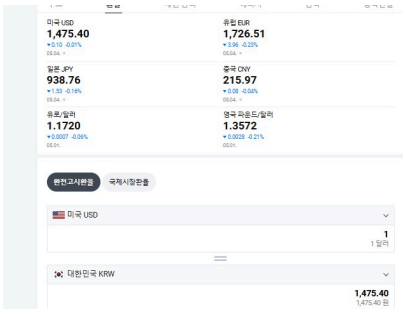
- 아마존이 자사 물류 네트워크를 외부 기업에 개방하는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Amazon Supply Chain Services)'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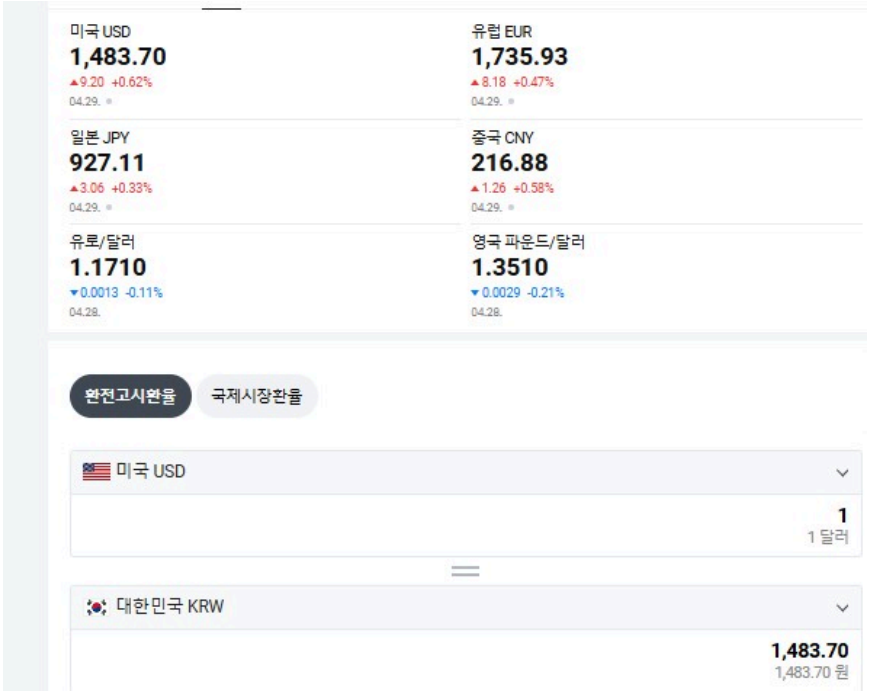
- 과거 내부 IT 시스템 관리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성장한 AWS처럼, 아마존은 지난 20년간 구축한 글로벌 물류망을 자사 입점업체뿐 아니라 모든 일반 기업에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 서비스에서 외부 서비스로 확대하는 제2의 AWS 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Peter Larsen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 부사장은 "자체 활용과 입주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제 규모와 형태에 상관없이 외부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라고 밝혔다.
- 유통 공룡 아마존이 이제 전 세계 기업의 물류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급망의 AWS'로 진화하려는 포석이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